



**100만
북한 어린이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운동**



* 2020년 8월부터 북한 최고위층과 협의하여 종자 생산 등 추진 하고 있음.

100만 북한 어린이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운동 이란 기아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 100만명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모금액은 옥수수 종자 및 비료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꿀초당 옥수수

(당 함량 15% 생식이 가능한 영양식 가장 맛이 좋은 식용 옥수수)

이삭 1개 = **500원**(생산비용)
이삭 1개 = 어린이 한끼 식사

10만원 = 200명 어린이 한끼 식사 가능



**12-9
고양**



ICF 국제옥수수재단
INTERNATIONAL CORN FOUNDATION



후원금
국민 817-01-0260-761
농협 038-01-074087
(계좌주: 국제옥수수재단)



교회후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금
(모형사: 천주교중앙협의회)



저금통
저금통에 동전 모으기
(모형사: 저금통마을채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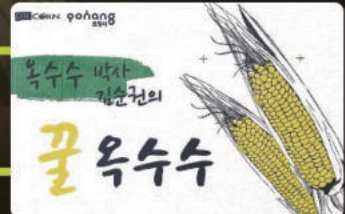
ARS
060-700-1519
전화비 3,000원



강연 및 간담
북한사업 및 재단의 사업에
관한 강연 및 간담
(모형사: 문화재단)



문의사항
02-337-0958
peacecorn@naver.com



INTERNATIONAL CORN FOUNDATION

A SEED CAN CHANGE THE WORLD

재단소식
재단 이전 및 취임 임원

언론보도
이사장 인터뷰 및 국내외 방송

사업현황
국내외 사업현황 소개

X-mas 캠페인
100만 북한 어린이 옥수수 먹이기



CONTENTS

NO	내용	쪽수
PART 1	인사의 글	3p
PART 2	통일을 꿈꾸며 인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ICF	4-5p
PART 3	재단 소식	6-9p
PART 4	2021년 재단 언론 보도	10-15p
PART 5	사업현황: 국내 사업	16-27p
	사업현황: 해외 사업	
	사업현황: 기타 사업	
PART 6	X-mas 캠페인: 100만 북한 어린이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운동	28-29p
PART 7	2021년 회계보고 안내	30p



안녕하세요. 국제옥수수재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옥수수 재단은 코로나의 여파로 지난 1월 서울에서 포항으로 재단을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포항의 청하면에서 천천히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후원자분들께 이전과 같이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며, 중단되었던 사업들이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제옥수수재단과 김순권 이사장은 청하의 '통일 옥수수센터'와 한동대학교의 '국제옥수수연구소'에서 옥수수 연구를 실시하여 진행 중인 '100만 북한 어린이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캠페인을 위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야생 동물(멧돼지, 고라니) 문제, 기상 이변(폭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라난 종자는 내년에 북한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 수출과 수입이 중단되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수교가 재개되었지만, 북한 식량난의 핵심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종자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북한 주민을 더 살려 함께 통일을 맞이하자'는 후원자님들과 국제옥수수재단의 마음이 북한의 식량난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바라며_대한민국, ICF, 한반도(2021)

앞으로도 국제옥수수재단은 북한의 식량난과 더불어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각국의 구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항상 사랑으로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2021년과 곧 다가오는 2022년에도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옥수수재단 일동

통일을 꿈꾸며 인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ICF



ICF (국제옥수수재단)을 사랑하고, 아끼며 기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 1월, 제가 1차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원인이 주 식량인 옥수수 (북한 이름 강냉이) 때문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냉이 생산에 실패한 북한을 보고 한없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망가진 농촌과 전국을 직접 확인하고 북한 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죽던가 아니면 옥수수로 동포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어 통일을 이루는 길을 닦는 민족의 심부름을 할 것이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도착 다음날 칠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려 호텔에서 30명의 북한 관리들 앞에서 강냉이 증산사업을 위한 2시간 발표를 했습니다. ‘나와 같이 강냉이 증산을 위해서 죽자’라는 제안에 두 관리가 손을 들고, 실패 시 박사 선생과 같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최초의 통일 장관 회담에 나온 권오홍 참사(보위부 이름 권민)와 민경련/개성공단 책임자 라운석 참사였습니다.

11일간 평양, 강원도 원산, 통천 (정주영 현대 회장님 고향), 묘향산 김일성 친선 박물관과 보현사를 방문하고 눈이 덮인 강냉이 밭을 확인했습니다. 콩을 심었던 강냉이 밭이 전혀 보이

지 않아 질문했더니 지금 밭에는 강냉이(옥수수)만 심도록 법이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냉이 생산량이 콩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땅의 기능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강냉이와 콩을 함께 심어야 하는데, 강냉이만 계속 심어 땅이 망가지고 비료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농사가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북한을 동포를 사랑하고 통일을 원하는 국민들과 북한 식량난을 과학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국제옥수수재단 (International Corn Foundation: ICF)을 서울에 설립했고, 100개의 NGO 들과 함께 “북한 옥수수 심기 범 국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59회 370일 북한의 방방 곳곳을 방문했으며, 2019년 8월15일에는 중국 동북3성에서 육종한 강냉이 종자 550종(닥터콘 개인 회사 육종)을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를 이어 지금도 북한의 식량 증산과 경제 발전을 돕는 협력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22년간 서울에서 활동했으나, 코로나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포항의 닥터콘 통일옥수수센터(2014년 설립)로 2021년 1월 11일 이사회와 총회의 결정으로 재단 본부를 이전했습니다. 통일옥수수센터에는 1,700평의 땅(김순권/한은실 개인소유 땅)과 530평의

정부 하천 부지 옥수수 밭이 있습니다. 또한 한동대학교의 국제옥수수연구소에도 시험농장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을 위한 옥수수 연구를 위해 한동대학교 사회 봉사 학생들 20명이 재단 활동을, 30명이 연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ICF는 북한의 주 식량인 강냉이 연구와 증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점 모금 캠페인으로 “100만 북한 어린이들 당도 15%인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만원이면 20명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식 꿀초당 옥수수를 먹일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2,000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산된 100만 이삭은 북한의 4개의 협동농장 (원화, 청산, 봉화리, 평양석정마을)으로 보내져 농업과학원을 중심으로 꿀초당옥수수 연구를 추진될 것입니다.

100만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해 생산하고 있는 옥수수는 잡종 하이브리드 종자(매년 새로운 종자 필요)로, 2007년에 개발되어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경북대학교 “하니콘”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6개 생태지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한 방임수분종 OPV 종자(생산된 알맹이를 다시 종자로 이용 가능) 육종을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ICF는 북한 지역 어디에서나 영양식인 꿀초당 옥수수가 모든 가정에게 공급될 뿐 아니라 장마당에도 시판되고,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도 시판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1이삭에 3불 정도로 팔리는 꿀옥수수가 중국에 시판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북한 외에 20개국 나라의 옥수수 육종 연구를 지원하는 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지역연구 및 ‘캄보디아 ICF Bio Center를 중심으로 한 아센국가들을 위한 옥수수 축산사료 연구 지원’, ‘아프리카 우간다/ 짐바웨 중심의 아프리카 악마의 풀 공생저항성 육종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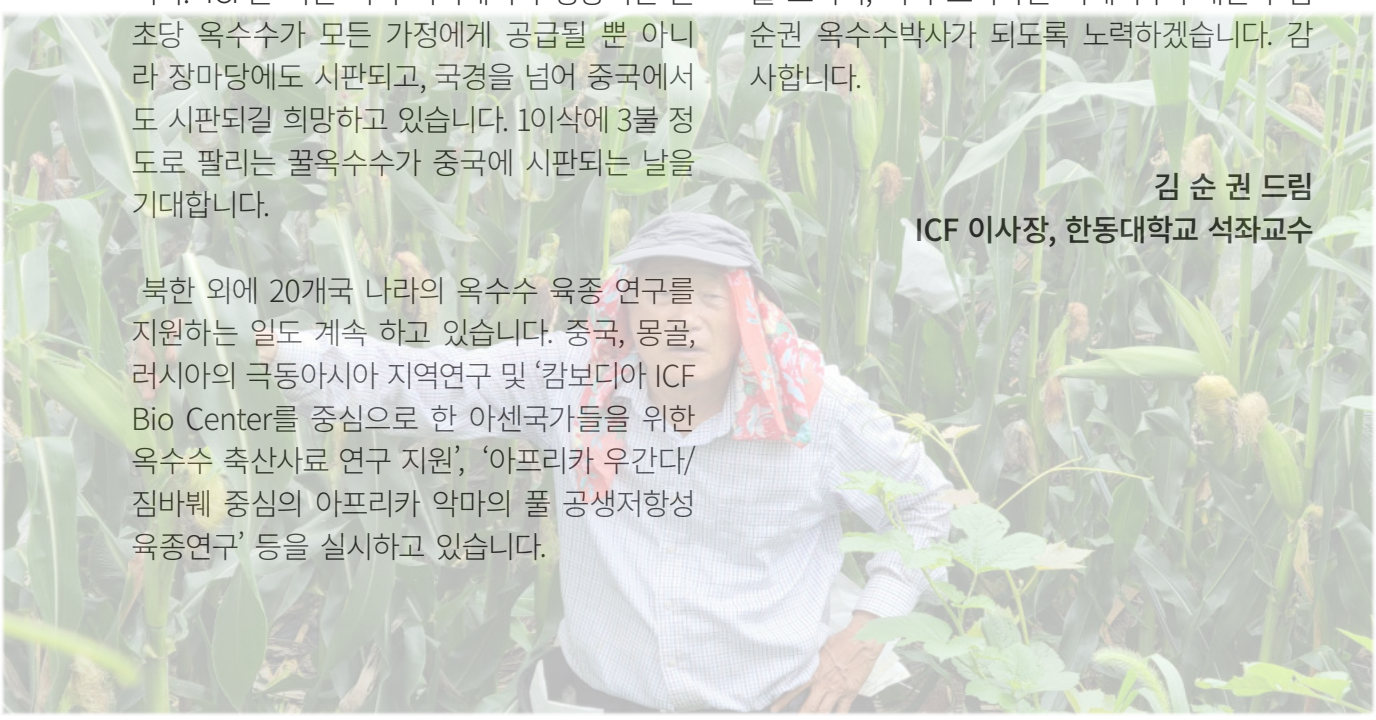
이 외에 기후변화 차단을 위한 거대 바이오 에너지 옥수수(키가 4m이고 옥수수 잎이 7개 더 달리는 옥수수) 연구와 당뇨 특효로 특허가 난 한동블랙콘(검정옥수수) 연구를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 옆에 ICF 본부가 있습니다. 공진시장으로 유명해진 청하면으로 가는 7번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국제옥수수재단의 간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동해의 유명한 월포 해수욕장(초보 서핑자들에게 크게 인기있는 수심이 낮은 월포해수욕장)이 옆에 있습니다. 포항 여행시 ICF 본부를 방문해주시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재단에는 태극기와 한반도기가 1년 내내 휘날리고 있습니다.

통일과 인류 건강 증진을 꿈꾸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옥수수재단의 연구와 활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단의 활동이 미국 CNN 북한 특집보도, EBS 초대석, KBS 남북의 창과 MBC 방송의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더욱 노력하는 국제옥수수재단과 김순권 옥수수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순 권 드림
ICF 이사장,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2021년 재단소식

1. 재단 이전

포항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단장한 국제옥수수재단을 소개합니다.



ICF 포항, 밖에서 바라본 사무실 풍경 (2021)

(1) 사무실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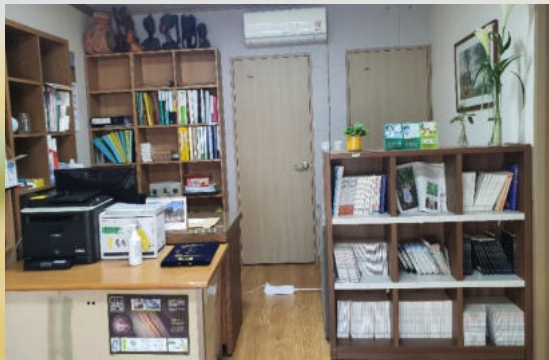
사무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정리는 7월 경에 마무리되었습니다.



ICF 포항, 이사장실 (2021)

이사장실

이사장실은 김순권 박사님께서 사용하시는 공간입니다. 연구와 종자선별 등 많은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손님 접대 및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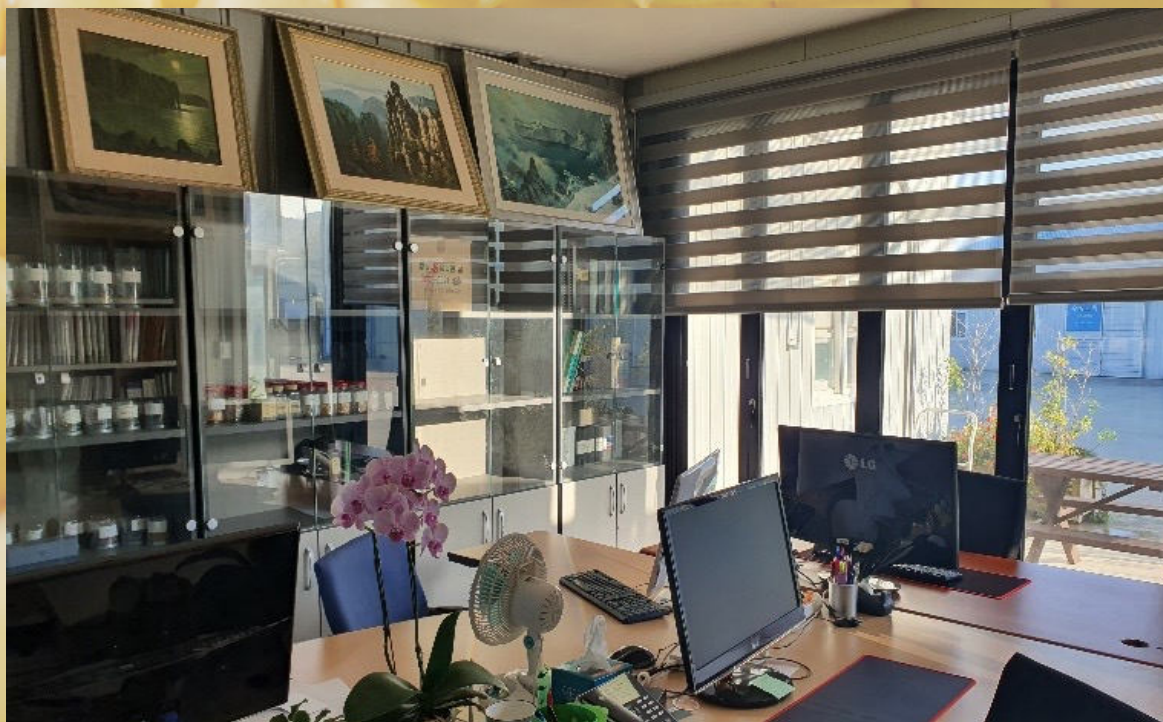


ICF 포항, 직원 사무공간 1 (2021)

사무공간

직원 사무공간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공간은 봉사자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한 주에 두 번씩 3-4명의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CF 포항, 직원 사무공간 2 (2021)



(2) 수양관

수양관

사무실 옆에 위치한 수양관입니다. 세미나실과 창고가 있습니다.

단체 손님이 방문하실 경우 이용합니다.



ICF 포항, 수양관 세미나실 (2021)

세미나실

강연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와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으며, 30명 정도의 인원 수용이 가능합니다.

6월에 초당옥수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1월에는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교수진 (대구 지식과 세상) 이 방문했습니다.

교제 공간

수양관에는 다과를 할 수 있는 교제공간이 작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ICF 포항, 수양관 교제공간 (2021)

포항 사무실과 수양관은 **한은실 후원회장님**의 도움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단을 향한 따뜻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2. 취임 임원 소개

2021년 재단에 오신 두 임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혜정 이사님과 이정일 감사님께서 국제옥수수재단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혜정 이사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시고, 남편이신 사부성 대사님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포르투갈, 카메룬, 일본, 미국, 태국, 독일 등)의 어려운 곳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여러 교회에서 협동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오랫동안 국제옥수수재단을 후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십니다.



이정일 감사님

[학력]

1982년 침례신학대학 신학사

1990년 침례신학대학 목회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1985년-현재 청하침례교회 담임목사

1993년 기독교한국침례회 경동 지방회장

2014, 2015 포항지방 지방회장 및 목사고시위원장

2016-2018 기독교한국침례회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기타활동]

2004-2013 극동방송 방송설교자 및 칼럼리스트

2004-200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범죄예방위원회, 포항시 청소년 범죄예방 전문강사

2010-현재 대법원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호위원

2017-현재 50사단 950대대 광명교회 민간 군목

새로 오신 두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2021년 언론 보도

1. KBS 남북의 창(통일로 미래로) 방송

작년 KBS 남북의 창(통일로 미래로) 방송에서 옥수수 박사 김순권과 국제옥수수재단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옥수수 품종 개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김순권 박사는 국제옥수수재단과 개발된 종자를 북한 동포들과 해외의 어려운 나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 옥수수 밭에서 봉사를 하던 한동대 학생의 인터뷰도 방송에 실렸습니다.

항상 북한을 생각하며 옥수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김박사는 ‘배고픈 사람이 없을 때까지, 본인의 생명이 다 할 때까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옥수수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는 결심을 말했습니다.



2. 제2회 독립운동가 최재형 대상 수상

(2021. 04. 20)

4월 20일 (화)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이사장이 2021년 제2회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은 한동대 석좌교수인 김순권 이사장을 제2회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에 추천하였습니다.

‘최재형 상’ 선정위원회는 김순권 이사장이 평생을 옥수수 품종 개발 및 연구에 바쳤으며 특히,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 기아에 허덕이는 지구촌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업적이 최재형 선생이 실천한 동포애와 ‘폐치카(난로)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제1회에 이어 제2회 ‘최재형 상’은 대상 1명, 단체상 1 기업, 활동가 상 1명

최용구 ‘최재형 상’ 선정위원장(인천대 이사장)은 “제2회 최재형상에 다양한 분들이 지원해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는 4월 14일에 제2회 ‘최재형 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20일 최재형 순국 101주년 추모식 장에서 시상식을 거행했습니다. 대상은 김순권 한동대 석좌교수, 단체상은 수산그룹(회장 정석현), 활동가상은 김승력 미르 대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상에는 상금 천만원과 상패, 단체상에는 상패, 활동가 상에는 상금 백만원과 상패가 주어졌습니다.

애국지사 최재형 선생님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더욱 나누고 섬기는 국제옥수수재단이 되겠습니다.

3. 매일경제 칼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옥수수 제안 (2021. 06. 17)

김순권 이사장이 기고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옥수수 제안' 칼럼을 소개 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를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친환경 정책을 세우고 있는 요즘, 김이사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옥수수'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전세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곡물로 단순히 식용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가축사료와 바이오 에너지 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옥수수의 35%를 생산하고, 생산한 옥수수 알맹이의 38%를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친환경 바이오 에탄올의 사용비율을 높여 탄소 중립화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박사가 2008년부터 육종하고 있는 친환경 옥수수는 슈퍼콘에 bm3, high sugar, leafy 등 유전자를 더한 품종들입니다. bm3 유전자가 섞인 옥수수 줄기는 소가 먹었을 때 소화율이 20% 더 높고 우유를 20% 더 생산하며, 고기 맛도 좋아집니다. 다만 이 bm3가 함유되면 옥수수 뿌리가 약해져서 바람에 잘 넘어지고 생산량이 20%가량 감소하기에 김박사는 중국에서 bm3 연구를 시작하여 2019년 뿌리가 강하고 알곡 수량도 보통이 되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연구로 일본과 중국이 주관한 후쿠오카 바이오에너지 국제 회의에 특별 초청받아 발표했습니다.

다른 유전자인 리피(leafy)는 옥수수 잎이 일반 옥수수보다 7개 정도 더 달리고, 키가 4m까지 자라 더 많은 부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옥수수대로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줄기와 잎을 잘게 부숴 전분과 당분을 만든 후 효소를 넣어야 하는데, 여기서 줄기의 당이 15% 이상이면 효소 없이도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줄기 내 당분을 연구하는 어려운 연구는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줄기 내 당분 함량이 22%에 달하는 옥수수 육종에 성공했습니다.

옥수수는 기후변화 억제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김박사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연간 수입하는 1000만 톤의 옥수수(쌀 생산량의 3배) 중 70%는 가축사료로 사용되며, 30%는 생활 전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후로 전세계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금, 알곡과 부산물을 모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김박사의 친환경 옥수수의 생산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유휴지와 벼농사로 남는 땅에 옥수수를 심는다면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칼럼의 전문은 매일경제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CNN 인터뷰 (2021.06.19)

올해 6월 CNN(Cable News Network) 미국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전달해드립니다. 김순권 박사와 국제옥수수재단의 이야기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하여 중국에서 식량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식량안보가 위협에 처했습니다. UN에 따르면 2개월치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역 생산물의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아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지난 10월 보도된 TV CHOSUN 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이 심해지자 김정은 위원장이 '도시당 책임비서(시 도지사)'들에게 옥수수 도시락을 싸서 다니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9월 8일에 북한의 노동당 청사에서 열린 경축 행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식탁 위에 옥수수 모양의 장식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11월에 발표된 UN보고는 4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상태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옥수수재단은 현재 진행중인 '100만 북한어린이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캠페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옥수수재단과 후원자님의 마음이 북한의 죽어가는 동포들에게 닿기를 희망하며, 더욱 노력하는 국제옥수수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 KBS 포항 라디오 (2021.07.02 / 2021.07.14)

지난 7월 2일, 14일. KBS 포항 라디오에 재단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북한 100만 어린이를 먹이기 위해 꿀초당 옥수수 재배 연구를 하시는 김순권 박사님. 꿀초당 옥수수는 당도가 15%로 보통 옥수수보다 달고 영양가가 많습니다. 생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옥수수입니다.

현재 포항의 통일옥수수밭과 한동대의 국제옥수수연구소에서 종자가 생산되고 있으며, 북한의 4개 협동농장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먹일 옥수수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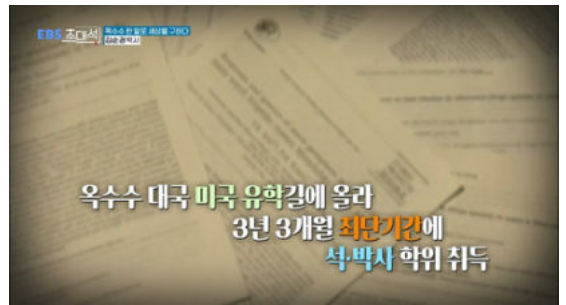
지난 5월에는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종자 전달이 불가능했지만, 추세가 회복됨에 따라 내년에는 종자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998년 첫 번째 방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북한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북경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농업연구대상을 수상하고, 노벨상 후보로 여러 번 추천되며 세계 각국에서 환영을 받는 김순권 교수, 바이오 연구와 가축의 사료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옥수수의 품종 개발은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평가가 박합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이 굶주린 아이들을 살리고, 더 많은 품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 EBS 초대석_옥수수 한 알로 세상을 구하다(김순권 박사)

7월 23일에 방영된 'EBS초대석-옥수수 한 알로 세상을 구하다-김순권 박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BS 초대석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저명인사분들을 초대해 그들의 삶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의 이사장인 김순권 박사가 해당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EBS 다시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시사뉴스타임: 옥수수 연구로 세계 식량 위기 해소에 나서는 김순권 박사 (2021.08.04)

8월에 발간된 시사뉴스타임에 김순권 옥수수 박사 와 재단에 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옥수수 연구로 세계 식량 위기 해소에 나서는 김순권 박사’라는 제목으로, 김순권 박사가 옥수수로 전세계 여러 분야에서 이끌어낸 성공적인 변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 세기에 이르는 54년의 시간 동안 옥수수 연구 개발에 매진하시어 전 세계 식량 위기 해소 및 기후 변화 차단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김순권 박사는 ‘옥수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이오 옥수수 개발, 바이오 메디컬 검정 옥수수 개발, 북한 적응 옥수수 개발, 러시아 남부 콘벨트 조성 및 아프리카의 건조한 기후에도 강한 옥수수 개발 보급 등의 전세계를 위한 옥수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제옥수수재단과 포항의 한동대학교의 협력을 통해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한동 블랙콘을 개발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옥수수 육종이 세계 곳곳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옥수수 육종가 김순권 이사장

CURRENT NEWS TIME | July 2021

옥수수 연구로 세계 식량 위기 해소에 나서는 '김순권 박사'

옥수수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전세계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다면 지구에서 식량 위기가 이 어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옥수수는 구황작물 중 하나로 훌륭한 한 끼 식사이다. 전식이 될 수 있는 육종이다. 이러한 옥수수를 본성에 걸쳐 연구하고 있는 옥수수 박사가 있 다. 바로 김순권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이다. 그는 옥수수 연구를 통해 전 세계 식량 위기 해소는 물론 기 후 변화 차단에 도전하고 있다. 과연 옥수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김순권 이사장의 행보를 따라가 본다.

[과학의 낙원, 육종 연구의 집결지]

김순권 이사장은 영미라고 농우라고 농학자를 증명하고 대학원 시절을 보이기 위해 공부했다.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1968년 대학원 시절에 낙향한 이후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연구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연구한 것이 바로 수도옥종과 홍살이 육종이다. 그는 육종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학원을 준비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1976년 미국 동서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았다. 이듬해 미국 유학한 후에도 여기서 김 이사장은 옥수수 육종 연구에 힘을 쏟아왔다. 여기서 김 이사장은 옥수수에 대한 인사이트를 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할 거 다하면서 3년 3개월 만에 석사학위를 받고 농촌진흥청으로 복귀한다. 이후 강원도를 중심으로 옥수수 농작업 관련 기술을 아예 연구에 나게 된다. 처음 열린 육종 연구가 자연스럽게 옥수수의원이 된 것이다. 1979년에는 아프리카 UN 국제개발협력연구소 IITA 옥수수 육종 연구원으로 들어가 17년간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옥수수에 대한 지식이 인공의 숙련된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가 된다 고 생각한 것이다.



HEB-BC (Black corn)

기후변화 차단을 위해 옥수수 육종선진기(1) 북한에 만들겠다

그는 2006년 농촌진흥청을 시작으로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CURRENT NEWS TIME

북한 2020년 어린이 옥수수 먹이교 실미

최리 김 이사장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옥수수 육종에 관해 하고 있다. 이에 쓰인 옥수수가 바로 문명산 옥수수다. 고당 옥수수, 사탕 옥수수 등으로 불리는 재배에서 많이 팔리는 옥수수에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달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던 것이다. 생리가 좋지 못해서 많은 옥수수는 달이 많지 않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최리 김 이사장은 달이 많은 옥수수를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CURRENT NEWS TIME | July 2021

“기후변화 차단을 위해 옥수수 육종선진기(1) 북한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를 통해 옥수수 하나로 인류의 생명

연구 등을 통해 옥수수 육종이 세계 곳곳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옥수수 하나가 불러일으킨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0만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옥수수 먹이교 1톤

1000만 원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옥수수 먹이교 1톤

국제옥수수재단

CURRENT NEWS TIME

8.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통일영웅’팀 방문 (2021.11.17)



11월 17일,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인 ‘통일영웅’ 팀이 포항의 재단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2시간에 걸친 인터뷰는 통일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영웅팀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기를 기대하며, 먼 곳을 방문해주신 통일영웅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통일영웅팀과 진행한 인터뷰는 통일부 산하의 블로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추후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현황

1 국내사업

1. 벤엘 공부방을 통한 경기 하남지역 결손 아동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

벤엘 공부방을 통한 경기 하남지역 소외계층 돕기 지원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 진행하던 새터민 한부모 가정 청소년 돕기는 경북,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준비 중이며, 점차적으로 지역을 넓혀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 “북한 100만 어린이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국민 운동”

캠페인 소개

본 사업은 1998년에 시작한 북한옥수수심기 범국민 운동의 연속 사업으로, 북한 정부의 협력과 남한 통일부의 허가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당도가 15%인 영양식 꿀초당 옥수수를 100만명의 북한 어린이에게 먹이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이삭을 생산하는 데에 500원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1만원이면 20명의 북한 어린이를 먹일 수 있는 이삭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1 꿀초당 옥수수 재배 사진

캠페인 진행

2021년, 포항의 국제옥수수재단 통일옥수수센터의 농장과 한동대학교의 국제옥수수연구소 농장에서 꿀초당옥수수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8월 - 10월 동안 본격적인 수확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확한 옥수수를 건조기에 넣어 수분을 제거한 후, 탈립(알맹이 분리)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1년 옥수수 수확(한동대 봉사 학생)

생산된 종자는 내년에 북한으로 전달된 후, 4개의 협동농장에서 재배되어 북한의 전역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멧돼지 피해와 폭우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후원자님들과 사회봉사 학생들의 도움에 힘입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북한의 6개의 생태지역 어디에서나 재배 가능한 꿀초당 방임수분종 OPV(생산 종자를 다시 심어 새로운 종자를 만들 수 있는 종) 생산에도 성공했습니다.

본 캠페인은 KBS 남북의 창, EBS 초대석 등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수확 옥수수 건조 작업



옥수수 탈립(한동대 봉사 학생들)

옥수수 탈립 및 종자 선별

건조시킨 옥수수의 알맹이(종자)를 분리하고, 분리한 알맹이 중 좋은 종자를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한동대학교의 국제옥수수연구소에서 총 30명(매 회 10명)의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2021년 생산 종자

1. 꿀초당 옥수수 종자(일회성 종자)
2. OPV 종자(다회성 종자)

현재 생산&선별한 종자들을 모아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확 꿀초당 옥수수 종자 포대



선별 종자(OPV)



OPV 선별 종자 포대



2021년 육종 검정 옥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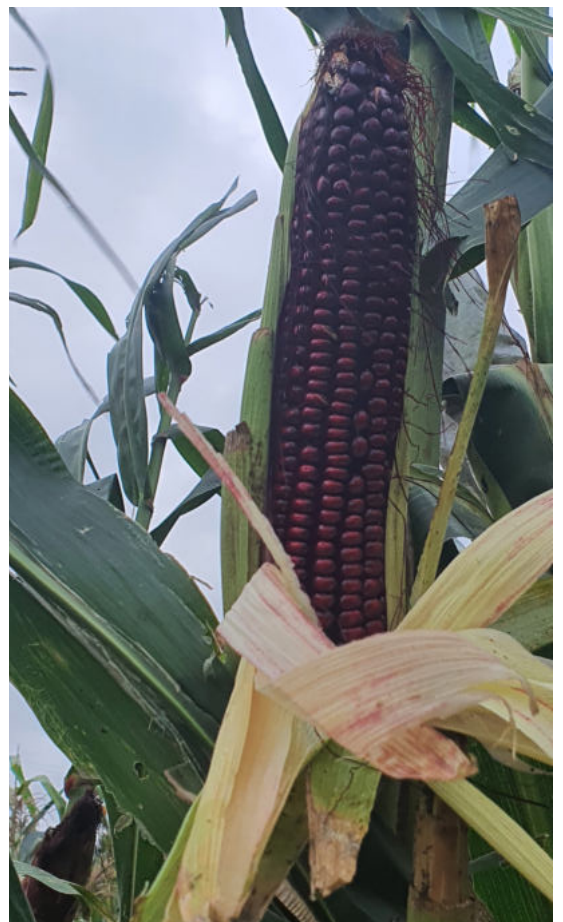
3. 당뇨병 특허 메디컬 옥수수 연구(한동 블랙콘)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인 질병 부담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병이라고도 불리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병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의 검정옥수수 연구는 2008년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7년 한동대 생명공학팀과의 협동 연구로 제2당뇨 치료에 특효를 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2019년에는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메디컬 블랙콘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속심의 안토시아닌(당뇨 효과있는 성분) 농도를 높이면서 다수확도 가능한 종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정 꿀초당 옥수수 품종 및 검정 찰옥수수와 검정 사료용 옥수수도 육종 중입니다. 본 연구는 국민병인 당뇨 치료뿐만 아니라 가족 질병 예방이 가능한 사료용 검정 옥수수를 개발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축산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을 꿈꾸며, 국제옥수수재단은 오늘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1 수확 검정옥수수(당뇨효과)

4. 기후변화 차단을 위한 슈퍼바이오 옥수수 연구 (bm3+leafy)

통일옥수수센터와 한동대의 국제옥수수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 차단을 위한 슈퍼바이오 옥수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bm3 유전자 품종을 가진 옥수수와 leafy 유전자품종을 가진 옥수수를 교배하여 두 품종의 특징을 모두 가진 새로운 옥수수 품종을 육종하는 것입니다.

(1) bm3 : 바이오 에너지용 옥수수 종자. bm3 옥수수의 부산물(줄기, 잎)은 가축인 소가 먹었을 때 다른 사료에 비해 소화율이 20% 가량 높습니다. 또한 해당 옥수수의 부산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면 20% 양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leafy : leafy는 옥수수 잎이 7개 더 달리고 키가 4m까지 자라는 옥수수 품종으로, 재배시 부산물의 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위의 두 옥수수를 교배한 'bm3 + leafy' 옥수수는 키가 4m, 잎이 7개 더 달리는 거대한 옥수수로, 소화율이 높아 사료 및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옥수수 선진국인 미국은 생산되는 옥수수 알맹이의 38%를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옥수수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2050 탄소중립 과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옥수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다가오는 기후변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bm3 옥수수



leafy 옥수수



bm3+leafy 옥수수 (2021년, 통일옥수수 농장)

현재 진행하는 연구는 알맹이뿐만 아니라 부산물인
잎과 줄기에서도 에탄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품
종을 개발하는 연구로, 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타 기관의 지원 없이 국제옥수수재단이 자체
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bm3+leafy' 옥수수 품종은 친
환경 에너지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사업현황

2 해외사업

코로나로 인해 해외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캄보디아’, ‘아프리카’, ‘몽골 및 러시아’에서 2021년의 국외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캄보디아: 문철성 지부장

2004년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시작된 옥수수 협동 연구는 캄보디아 반디땡의 ICF Bio Center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이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 캄보디아는 옥수수 연구에 좋은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부입니다. 50헥타르의 거대한 시험장에서는 슈퍼 사료용, 식용 옥수수과 바이오 에너지 옥수수 연구, 꿀초당 OPV(북한 전달 예정 종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11.16 미국 종자 선별



2021.11.17 중국종자 선별

2021년 11월, 새로 수확한 한국 종자와 미국산, 중국산, 우크라이나산 종자 181종을 선별하여 캄보디아의 ICF 지부에 전달하였으며 현재 파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지부에서 연구·개발된 종자는 주변의 ASEAN 국가(동티모르,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등)에게도 전달되었으며, 앞으로도 개발한 종자는 여러 국가들의 기아 해결과 발전을 위해 현지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KOICA의 지원을 받아 남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ICF 농장 사진(2021.11.28.)



캄보디아 전달 선별 종자(2021.11.28.)



캄보디아 전달 종자 파종(2021.11.28.)

2. 아프리카

1979년 IITA에서 시작한 슈퍼옥수수 연구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옥수수 유전자원 1,000종을 아프리카 5개국에 기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옥수수재단의 아프리카 연구는 짐바브웨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나(2011년 짐바브웨 대통령 요청으로 시작), 연 1회의 제한적인 옥수수 육종과 안전 문제로 인해 연구사업 지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짐바브웨의 연구소를 우간다로 옮겨 아프리카 옥수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간다 정부 농식품부 산하의 NaCCRI 국립연구소에서 연중 옥수수 협동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연구의 핵심 과제는 ‘빅토리아 호수 지역에 적응 가능한 옥수수 품종 개발’입니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빅토리아 호수 부근은 호수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 옥수수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악마의 풀, 가뭄, 매문병 등의 문제에 적응이 가능한 옥수수 품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지역에 적응이 가능한 옥수수 품종 개발이 성공한다면, 인근 5개국(케냐, 탄자니아, 루완다, 브룬디, 남수단)에 개발한 종자를 보급하여 구호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전자원 1000종 기증 (2019)



빅토리아 호수와 인근 국가들

빅토리아 호수 지역에 적응이 가능한 옥수수 품종 개발이 성공한다면, 인근 5개국(케냐, 탄자니아, 루완다, 브룬디, 남수단)에 개발한 종자를 보급하여 구호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6개국의 옥수수 증산과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인 OnebodyUganda와 협력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KOICA의 협력 사업으로서의 추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골 다르항 농업연구소(MCP종자 성공)

3. 몽골과 러시아 옥수수 연구

(1) ICF 몽골

(다르항 농업연구소, 밝은미래국제학교)

ICF 몽골지부는 2004년, 당시 몽골국제 대학교 고재형 교수(현 후레대학 교수)의 요청으로 시작되어 북부 농업시험장과 협력사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250km 떨어져있는 다르항(Dahan)의 농업연구소에서 몽골의 추운 기후에 적응이 가능한 옥수수 육종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북한 개마고원 대홍단에서 선발한 옥수수(미국 몬타나주 고산지 자주색 옥수수X몽골 서쪽 극조생 재래종)와 러시아 흑해 볼그라도 주 수집종(미국 파이오니아 하이브리드 F2종, 캐나다 조생종옥수수)을 교배하여 MCP(Mongolian Corn Population) 육종에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종자는 몽골 농협의 주선으로 다르크항 부근의 축산농가에 시범재배를 완료했습니다.

몽골의 추운 기후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옥수수 개발 성공은, 기존의 '유목축산'이라는 몽골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입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800년이라는 긴 유목 축산의 역사를 가진 몽골이 정착 축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몽골 정부를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 울란우데시 신품종 옥수수 육종 농장

(2) 러시아 옥수수 연구

2016년, 몽골에 적응하는 옥수수 종자인 MCP를 러시아의 울란우대 농과대학교 농장에서 재배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을 거둔 2020년에는 옥수수 연구 성공 내용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러시아 콘벨트 조성' 과 관련한 안건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자치주인 브리야타 공화국에서 몽골 옥수수 육종 연구 협력사업이 계속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평야지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콘벨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해주에 적응하는 옥수수 육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의 러시아 옥수수 연구가 훗날 한반도의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지부에서 힘써주시는 황찬일 지부장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Buryat 농장에서 자란 희망의 옥수수

4. 중국

국제옥수수재단의 중국 옥수수 연구는 재단의 창립일보다 훨씬 전인 1977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77년 방콕에서 열린 UN-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 소련이 옥수수 연구 도움을 김순권 박사님에게 처음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 1984년 중국 농업과학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옥수수 자문을 요청받아 다음 해에 11일간 베이징, 난징, 광저우를 방문하여 200가지의 유전자원을 기증하였습니다.

1995년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에서 중국의 연변과 하얼빈에서 김박사님의 옥수수 연구가 자체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동북 3성에서 슈퍼콘 개발이 실시되었습니다. 북한과 기후가 비슷한 동북 3성에서 자란 옥수수는 북한 땅에 적응이 가능한 종자입니다.

중국은 현재 4,500만 헥타르(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의 60배 이상)의 땅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고, 년 20조원이 넘는 거대한 옥수수 종자 시장을 가지고 있는 옥수수 선진국입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북한이 거대한 중국 종자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사업현황

3 기타사업

1. 2021년 꿀초당 옥수수 교육 1기 진행 완료

제 1기 꿀 초당 옥수수 재배 현장 교육이 2021년 6월 21~26일 동안 포항의 청하면에 위치한 ICF 포항 본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의 통일 옥수수센터와 한동대학교 통일농장에서 현장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연수생분들께서는 꿀 옥수수 재배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실습해봄으로써 이론과 실전을 모두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수비용 전액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100만 북한 어린이 꿀 옥수수 먹이기 운동”을 위한 후원금으로 기부되었습니다.

2. 대구 지식과 세상팀 포항 방문

지난 11월 9일, 대구의 지식과 세상 팀(경북대학교 박찬석 전 총장 및 교수 13분)이 국제옥수수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수양관으로 방문팀을 모셔 재단 설명회와 강연, 질의응답으로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의 본부를 방문해주신 지식과 세상팀에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더욱 노력하는 국제옥수수재단이 되겠습니다.

재단 방문을 원하시는 단체의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재단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2021 KCOC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원 파견

‘KCOC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사업’은 기관의 해외 지부에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KCOC(해외NGO단체 협의회)의 주관으로 KOICA의 지원금을 받아 진행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몽골에 파견되었던 봉사단원이 중도 귀국한 이후 코로나 악화로 2021년 상반기까지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으나, 백신 개발 등으로 호전되는 상황에 따라 봉사단원 파견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청 결과 국제옥수수재단의 ‘캄보디아, 몽골, 우간다’ 지부에 총 4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선발된 봉사단원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국제옥수수재단 해외 지부의 현장에서 연구를 도와주실 봉사단원분들을 환영합니다.



X-MAS 캠페인

"100만 북한어린이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2021년 X-mas '100만 북한어린이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당뇨병’이 현대인의 질병이 되어버린 남한과는 반대로, 북한에서는 당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은 코로나 상황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100만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해 당도 15%의 영양식인 꿀초당 옥수수의 종자를 생산해 북한에 전달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은 북한 정부의 요청과 남한 통일부의 허가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에 전달될 종자들은 포항의 통일옥수수센터와 한동대학교의 국제옥수수연구소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의 피해와 폭우 등의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으로 보내져 많은 생명을 살릴 희망의 옥수수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안전하게 올해의 수확량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옥수수 종자를 전달하지 못했지만, 북한 대사관과 협의 하에 내년에는 종자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아서 통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국제옥수수재단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명의 아이에게 옥수수 이삭 한 개를 먹일 수 있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500원이 필요합니다. 1만원이면 20명의 아이들을, 100만원이면 2,000명의 굶고 있는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필요한 총 모금액(종자 생산비와 비료비)은 5억원이며, 2021년 현재까지 2500만원 정도의 모금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와중에 도움을 주셨지만, 여전히 북한에 보낼 종자와 비료를 위해 모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모금에 힘써 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 링크


<후원방법>


- ① 오른쪽 상단의 QR 코드 스캔 -> 일시후원 신청
- ② 국제옥수수재단 홈페이지 -> 후원 신청
- ③ 그 외 방법


 **ARS 후원**
060-700-1519
한 통화 3,000원

 **강연 및 간증**
김순권 박사의 강연 및 간증
(전화 문의)

 **저금통**
옥수수 저금통 모금
(요청시 배송)

 **교회후원**
이웃사랑을 위한 헌금
(요청시 봉투배송)

 **문의사항**
02-337-0958
peacecorn@naver.com

 **계좌이체**
국민 871-01-0260-761
농협 038-01-074087
신한 100-020-078132
우체국 10041-01-012715
대구 051-05-675924-001
부산 020-01-036868-2
(예금주: 국제옥수수재단)

2021년 회계보고 안내

본 재단의 2021년 회계보고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재단 이전 이후, 많은 행정적 절차를 거치며 보고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후원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2021년 1-2 분기의 감사를 2021년 6월 2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오신 이정일 감사님에 작성된 감사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이후 분기에 대한 최종보고는 연말결산이 완료된 후 재단 홈페이지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사단법인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 귀하

본 감사인은 사단법인 국제옥수수재단 정관 제14조 제3항과 제31조 및 본 재단 감사규정에 의하여 본 재단의 2021.01.01.부터 2021.06.23.까지의 기간에 대한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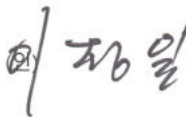
감사결과로 회계처리와 행정 등에 대한 시정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본 재단의 특성과 경제적인 타당성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결정하실 것을 첨언합니다.

2021. 06. 24

감 사

이 정 일



2021.12.09 **발행일**

김순권 **발행인**

국제옥수수재단 **발행처**

조예림 **편집인**

02-337-0958 **T**

054-232-3022 **F**

peacecorn@naver.com **E**

www.icf.or.kr **H**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길80번길 18 **주소**